

제3장 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 제1절 | 인구학적 역동과 인구구조

1. 최근의 상황과 과거의 경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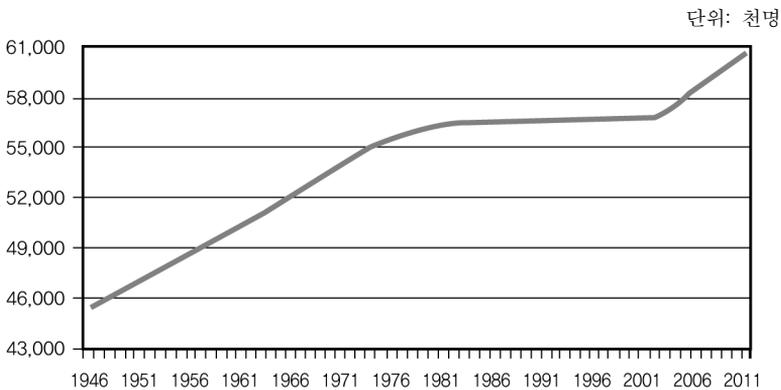
이탈리아 통계청(ISTAT)¹¹⁾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60,626,442명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주로 이민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은 1951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말까지, 인구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이탈리아가 자국민을 많이 이민을 보내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순인구이동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Bonifazi et al. 2009).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인구통계적 변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1993년부터, 이탈리아는 외국인 인구가 소폭 증가함에도 자연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2000년대 초반 동안에는 ([그림 1-3-1]), 이탈리아는 인구상의 중요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이탈리아로 유입된 많은 이민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11) <http://dati.istat.it> 2012년 1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접속

Sociali 2011). 인구등록 데이터에는 연간 순인구 이동이 대략 425,000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평균 연간이주자가 1,000명의 거주자 중 약 7.2명 정도인 것을 말한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탈리아는 EU 27개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인구유입을 보이는 국가로 기록되었다(Eurostat 2011a)¹²⁾. Bonifazi 외 (2009)의 연구자들은 “2001년에서 2007년 초반 사이 210만 명의 거주자의 3/4의 증가의 원인은 외국 이민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460만 명의 거주자는 외국인이었다. 이는 2001년 이탈리아 내 외국인 거주자는 총 인구의 2.3%였으나 2010년 외국인 거주자는 총 인구의 7.5%에 해당한다(ISTAT 2011c).

[그림 1-3-1] 이탈리아 인구의 절대숫자(1946~2011)



자료: Istat

12) <http://stats.oecd.org/Index.aspx> 국제이주데이터베이스, 2012년 1월 27일 마지막 접속

〈표 1-3-1〉 이탈리아 인구의 자연변화와 순인구이동(1951~2011)

단위: 명

	1,000명 당 연간평균값			1,000명 당 연간평균값		
	자연변화	순인구이동	총변화	자연변화	순인구이동	총변화
1951~1961	415	-104	311	8.5	-2.1	6.3
1961~1971	456	-105	351	8.7	-2.0	6.7
1971~1981	238	4	242	4.3	0.1	4.4
1981~1991	42	-20	22	0.7	-0.3	0.4
1991~2001	-18	40	22	-0.3	0.7	0.4
2002~2010	-13	424	411	-0.3	7.2	6.9

자료: 1951~2001 기간 동안의 그림은 Bonifazi 외(2009)의 연구에서 인용, 2002~2010의 측정치는 이탈리아 국가통계청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 (ISTAT, www.istat.it).¹³⁾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의 변화양상은 이탈리아 지역적 구분에 의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¹⁴⁾ 이탈리아의 북쪽과 중앙지역 - 인구의 자연변화가 부(-)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 에서는 양적인 순인구 이동률이 관찰 가능 하였으며, 2009년에 6.1% (서북부)에서 7.8% (중부) 사이의 상대적으로 높은 총 변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남부지역에서는, 약간 양(+)-적인 자연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인구 이동률은 총 변화율(1.3%)에 비해 약간 낮은 양상을 보이며 중부와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서지역은 다섯 개로 구분

13) 1951년부터 2001년까지 데이터는 총인구조사 데이터와 등록인구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탈리아 센서스는 보통 10월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은 “1951년 10월-1961년 10월”이고, 2번째 줄은 “1961년 11월-1971년 10월” 기간으로 해당되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다만 2002년부터 등기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14) 이탈리아 국가통계국(ISTAT) 통계를 위해 5개로 지역구분을 하였다. 이는 주로 “세부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서북부” (Aosta Valley, Piedmont, Lombardy and Liguria), “동북부”(Friuli-Venezia Giulia, Emilia-Romagna, Veneto and Trentino Alto Adige), “중부”(Tuscany, Umbria, Marche and Lazio), “남부” (Abruzzo, Molise, Campania, Basilicata, Calabria and Apulia) 그리고 “도서지역” (Sicily and Sardinia)으로 나뉜다.

한 이탈리아의 지역 중 가장 낮은 인구변화를 보였는데(1%), 이것은 이민자의 정착분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인구분포는 실상 이탈리아 내에서 균등하지 않다. 다수의 이민자(280만 명, 이민자의 61.2%)가 이탈리아 북부에 살고 있고 110만 명(25.2%)은 중부에 살고 있으며, 60만 명도 안 되는 적은 수가 이탈리아 반도의 절반 아래 남쪽에서 살고 있다(남부 9.6%, 섬 3.9%).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탈리아의 인구분포 양상은 주로 두 가지로 변별된다. 북부와 중부에서는, 인구의 자연 변화감소를 상쇄하는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총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이탈리아 남부와 도서지역의 연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인구의 낮은 자연 증가율과 더불어 이민자들의 낮은 유입도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1-3-2>).

〈표 1-3-2〉 지역적 분화에 따른 이탈리아 인구의 자연 증가율과 순 인구 이동(2009년)

단위: %

	평균 연간 변동률 (1,000명)		
	자연증감	순 인구이동	총 변화
서북부	-0.7	6.8	6.1
동북부	-0.4	7.2	6.8
중부	-1.0	8.8	7.8
남부	0.4	0.9	1.3
도서지역	-0.3	1.3	1.0
이탈리아	-0.3	5.3	5.0

자료: I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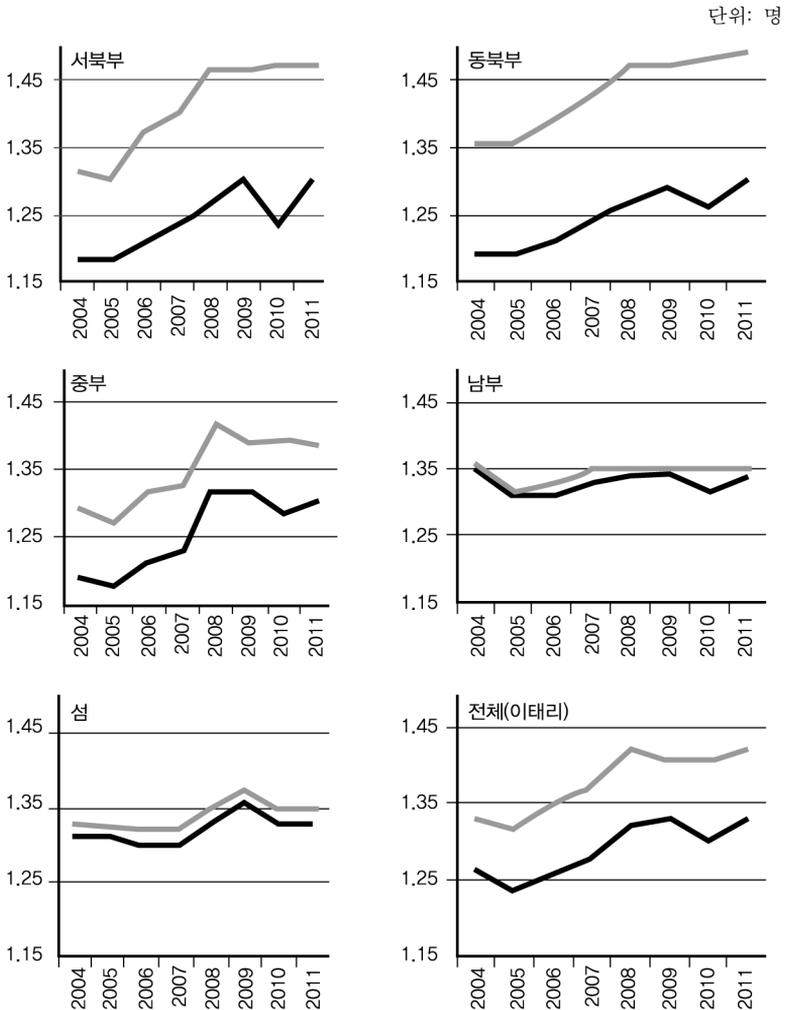
최근의 이러한 이민현상은 이탈리아의 총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총 출산율(TFR)은 한 집단의 여성들이 생애 동안 임신이 가능

한 특정한 연령층에 있을 때 가진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2010년, 총 출산율은 약 1.42¹⁵⁾로 추정되었고, 이는 여전히 대체출산율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 출산율 측정치는 1995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1.19보다는 높은 것이었다. 최근 몇 년 간 나타난 부분적인 출산율의 증가는 출산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같은 ‘속도’ 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다(Bongaarts and Feeney 1998). 1995년에는 3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의 47.4%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3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이 65.9%나 되었다. 같은 시기에, 40세 이상의 출산은 1995년 2.4%에서 2008년 5.6%로 2배 이상의 변화를 보였다(Associazione italiana per gli studi di popolazione 2011).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외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훨씬 높았던 덕분에 이탈리아의 총 출산율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상, 2010년에는 이탈리아 여성의 총 출산율이 외국 여성의 총 출산율이었다던 2.13과 비교하여 1.29에 지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외국 여성들이 이탈리아 국가 총 출산율의 약 12% 정도 기여한 셈이다. 2010년에 태어난 아동의 대략 19% 정도인 557,000명이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2000년도에는 외국인 여성이 전체 출산율에 6.4%만 기여한 것과 비교할 때, 이탈리아의 10년 사이의 출산율 변화를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ISTAT 2011b).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의 총 출산율에 대한 기여는 지역별로 나타난 출산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 영향력은 중부에서는 어느 정도 낮게 나타났고 남부 및 도서지역에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었던 반면 북부지방에서 점점 더 크게 나타났다.

15) http://demo.istat.it/altridati/indicatori/2010/Tab_4.pdf 2012년 1월 30일 마지막 접속

[그림 1-3-2] 지역구분에 따른 총 출산율,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수와 이탈리아 어머니의 자녀수(2004~2011년)



주: 영토구획에 따라 총 출산율이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산되고, 그 중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여성들만의 출산율 표시함

자료: ISTAT

[그림 1-3-2]는 외국인 여성들과 이탈리아에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존재가 확실히 총 출산율에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동북부와 서북부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한 부(-)적인 인구자연증가율이, 이탈리아의 남부를 제외하고, 외국인 인구의 기여 없이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Bonifazi et 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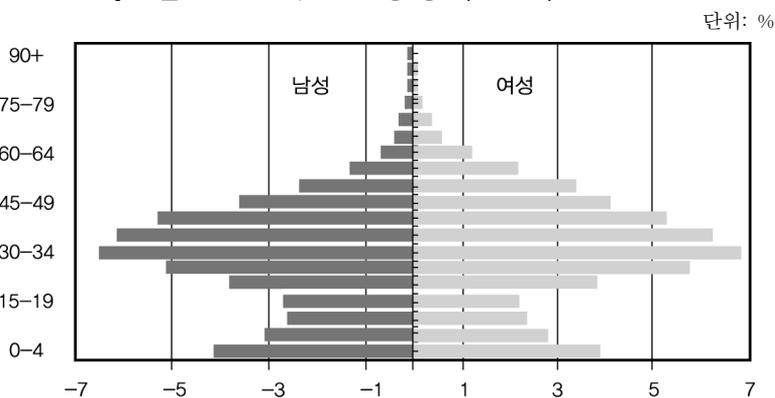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붉은 선은 총 출산율을 나타내며 오직 이탈리아 어머니에게서만 난 자녀를 포함하여 얻은 반면에 푸른 선은 이탈리아 및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난 자녀들을 모두 포함한다.

비록 이탈리아에서 인구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주민의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것이 다른 면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를 늦춰준 것으로 볼 수 있다(Bonifazi et al. 2009;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2011). 이주민의 연령구성은 실상 이탈리아의 인구구성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외국인의 대다수는 25~44세이며[그림 1-3-3 참조], 젊은 인구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과 높은 비율의 출산으로 인한 것이다(Bonifazi et al. 2009). 반면에 이탈리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구조이다. [그림 1-3-4]에서 볼 수 있듯, 이탈리아 인구피라미드는 아래로 좁아지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젊은 인구와 비교적 연령이 높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저출산과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는 1960년대에 태어난 40~50세 연령층에서 볼록한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1970년대의 총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앞서 출산율의 급속한 증가(베이비 붐)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이탈리아 인의 70~74세 연령층이 5세 이하의

어린이들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대 별 불균형은 인구구성의 수많은 지표들에 반영된다. <표 1-3-3>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리아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인구의 연령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인의 평균 연령은 43.5세인데 비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3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탈리아의 부양인구 비율은 54이며 노령화 지수는 156.2인데 비해 외국인은 각각 27세와 11.2임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의 유입이 이탈리아 인구구조¹⁶⁾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들 중 노인인구 비율¹⁷⁾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Eurostat 2011a). 2010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10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며 더욱이 전체인구 100명 중

[그림 1-3-3] 이탈리아의 외국인의 연령-성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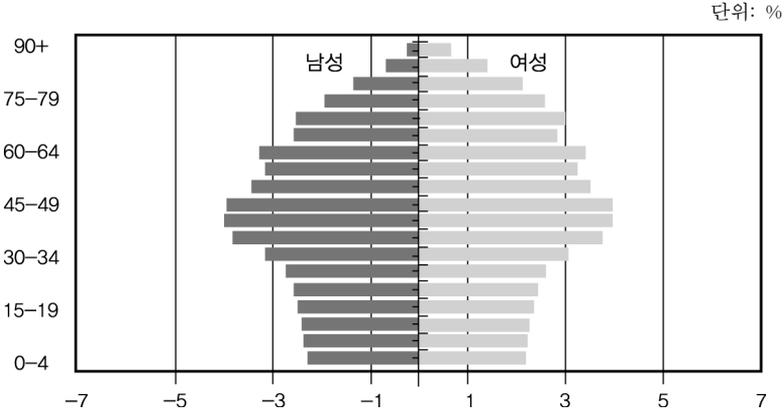


자료: ISTAT data.

16) 이주가 인구의 연령구조에 끼치는 영향은 대개 보통으로 나타난다(Coleman 2003). 게다가, 이탈리아의 이주는 상당히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최근의 인구 연령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17) 2009년에는, EU 27개 국가들의 평균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17.2%였다. 독일과 이탈리아 두 국가만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었다(Eurostat 2011a).

[그림 1-3-4] 이탈리아의 연령-성비(2010년)



자료: ISTAT data.

〈표 1-3-3〉 이탈리아인과 외국인구에 대한 연령구조측정(2010년)

단위: 명, %, 세

	노인부양인구	부양인구율	노령화지수	평균연령
이탈리아인	32.9	54.0	156.2	43.5
외국인	2.7	27.0	11.2	31.9
이탈리아	31.0	52.2	144.0	43.0

자료: ISTAT, own elaborations

한 명(거의 1%)은 90세 이상이다. <표 1-3-4>가 보여주듯, 65세 인구 중 약 58%가 여성으로 나타나, 노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80세 이상으로 분석을 한정하면,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35%만이 남성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기대수명이 좀 더 높은 것과 더불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동시대 출생 집단에서 전쟁에 관련된 사망률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인구 고령화(즉, 나이가 많은 개인들이 전체 인구 중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현상(UN 2001)는 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특히 고령 인구층에서의 사망률 수준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어 인구고령화를 촉진하는 데에서 비롯된다(Livi Bacci 1999). 출산율과 사망률은 실상 인구 고령화를 조절하는 주 동력으로 남아있는 데 반해 주(主)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에 있어 국제적 이주의 역할은 꽤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작용되지는 않았다(Lesthaeghe 2000; UN 2000).

〈표 1-3-4〉 이탈리아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절대(와 백분율)분포(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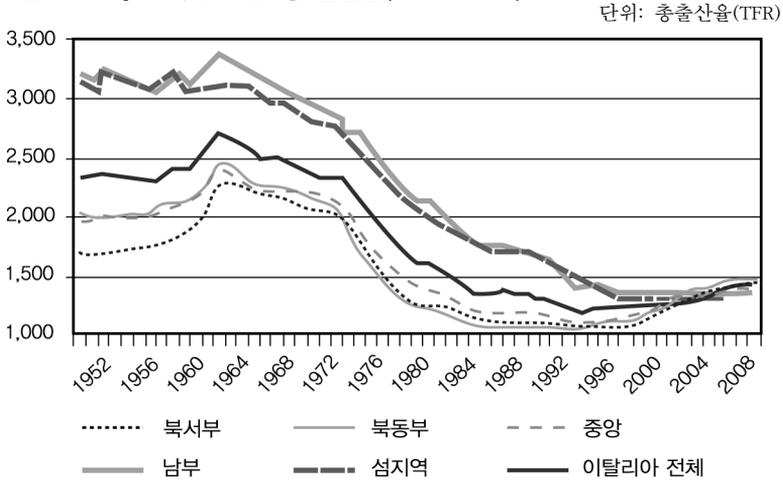
단위: 명, %

연령	남성인구 (%)	여성인구 (%)	총인구 (남성+여성)	
			절대수	백분율 (%)
0~14	4,377,496 (7.2)	4,135,726 (6.8)	8,513,222	14.05
15~24	3,113,261 (5.1)	2,955,972 (4.9)	6,069,233	10.01
25~49	11,041,130 (18.2)	11,005,673 (18.2)	22,046,803	36.36
50~64	5,690,445 (9.4)	6,005,202 (9.9)	11,695,647	19.29
65~79	3,945,922 (6.5)	4,742,094 (7.8)	8,688,016	14.33
80+	1,245,020 (2.1)	2,368,501 (3.9)	3,613,521	5.96
Tot	29,413,274 (48.5)	31,213,168 (51.5)	60,626,442	100

자료: ISTAT 2011.1.1 기준, <http://demo.istat.it/pop2011/index.html>, 2012년 1월 20일
마지막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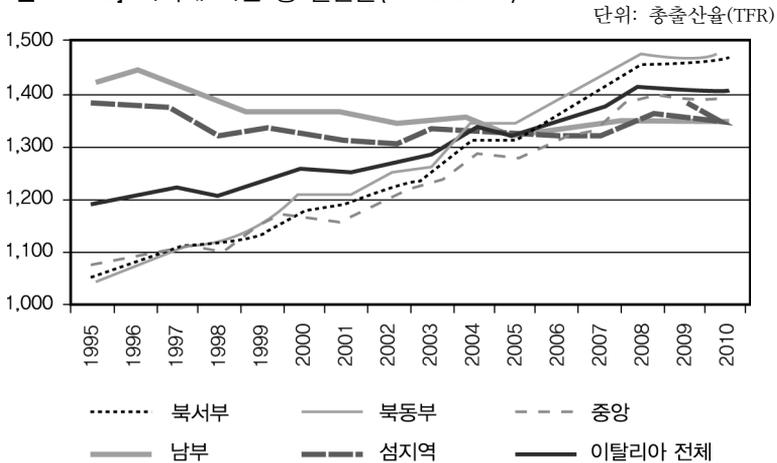
인구 보충 출생률인 2.1을 상회하는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1964년부터 지속적인 감소했는데, 1995년 여성 한명 당 1.19명으로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다. 1995년부터 총 출산율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한 명의 여성 당 1.4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3-5]와 [그림 1-3-6] 참조).

[그림 1-3-5] 지역에 따른 총 출산율(1952~2010)



자료: L'archivio della statistica italiana, Istat (<http://seriestoriche.istat.it>). 2009년과 2010의 그래프는 <http://demo.istat.it/altridati/indicatori/index.html>에서 자료화하였음(2012년 1월 31일자).

[그림 1-3-6] 지역에 따른 총 출산율(1995~2010)



자료: L'archivio della statistica italiana, Istat (<http://seriestoriche.istat.it>). 2009년과 2010의 그래프는 <http://demo.istat.it/altridati/indicatori/index.html>에서 자료화하였음(2012년 1월 31일자).

인구고령화를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은 전체적인 사망률이 낮아진 것인데, 종종 그 해에 출생한 자 및 65세의 기대수명 측정을 사용하여 설명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어떤 나이에 있는 개인이 미래의 사망률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연령 이후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잔여기대수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표 1-3-5>이 보여주듯, 2010년에 태어난 경우, 남성의 기대수명은 79.1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4.3세에 달한다. 1950년부터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지속적으로 감소한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지난 60년 동안 15.1년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16.8년이 증가했다. 다음은 65세의 잔여기대수명에 대한 내용인데,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잔여기대수명은 18.2년, 여성은 21.8년으로 나타났다. 1950년과 2010년 사이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남성의 경우 5년, 여성의 경우 7.5년이 증가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그러하듯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Eurostat 2008). 1980년과 2010년 사이에는 출산 시 기대수명에서의 성차가 부분적으로 감소되었다. 1980년(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해 중 하나)에 6.8년의 차이가 2010년에는 5.2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인구구조는 <표 1-3-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의 남부와 도서지역의 젊은 연령층 구성은 과거의 장수와 출산의 경향을 반영한다. 그 반면, 장수의 증가경향은 국가 전체에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왔고(<표 1-3-6> 참조), 출산율의 경향은 지역적 차이를 보여왔다(<표 1-3-5>와 <표 1-3-6> 참조).

〈표 1-3-5〉 출생 시 기대수명과 65세 시 기대수명(연도에 따라) 선택된 연도 간의 비교(1950, 1980, 2010)

단위: 세, 년

		1950	1980	2010
남성	출생시	64.0	70.5	79.1
	65세	13.2	13.6	18.2
여성	출생시	67.5	77.3	84.3
	65세	14.3	17.3	21.8

자료: 1950년과 1980년 자료는 Human Mortality Database(Unicersity of California Berkeley(USA) an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Germany) www.mortality.org.를 통해 얻을 수 있고 2010년도 [예상치]는 이탈리아 통계국으로부터 얻음. [www.istat.it\(http://demo.istat.it/altridati/indicatori/2011/Tab_5.pdf\)](http://demo.istat.it/altridati/indicatori/2011/Tab_5.pdf).

〈표 1-3-6〉 지역적 구분에 따른 연령구조의 측정(2009년)

단위: %, 세

	노령자 피부양률	부양비	노령화지수	평균나이
서북부	33	53	160	44
동북부	32	53	153	44
중부	33	53	161	44
남부	26	49	115	41
도서지역	28	49	125	42
이탈리아전체	31	52.2	144	43

자료: ISTAT, own elaborations

지역에 따른 기대수명을 비교할 때, 기대수명의 증가가 이탈리아 각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남녀의 기대수명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이탈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남부와 도서지역의 여성들은 북부지역의 여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1년까지 기대수명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최근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 지역적인 차이는 지역에 따라 반대로 나타난다. 북부와 도

서지역은 과거 기대수명 경향과 차이를 보이는데, 과거에는 도서지역의 기대수명이 더 높았으나 최근에는 북부 남성의 기대수명이 출생 시 및 65세의 기대수명 모두 도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7〉 성별, 지역별 출생시와 65세 때의 기대수명(1989, 2009년)

단위: 세, 년

	남성				여성			
	1989		2009		1989		2009	
	출생시	65세	출생시	65세	출생시	65세	출생시	65세
서북부	72.9	14.5	78.8	18.1	80.0	18.7	84.2	21.8
동북부	73.4	15.0	79.3	18.4	80.6	19.4	84.6	22.2
중부	74.2	15.2	79.3	18.4	80.3	18.9	84.3	21.9
남부	73.9	15.3	78.4	17.8	79.3	18.2	83.6	21.1
도서지역	73.9	15.4	78.2	17.8	79.2	18.1	83.4	20.9
이탈리아	73.5	15.0	78.9	18.1	79.9	18.7	84.1	21.7

자료: Associazione italiana per gli studi di popolazione(2011)

[그림 1-3-5]와 [그림 1-3-6]은 또한 지역에 따른 총 출산율을 보여 준다. 전체 기간에 걸쳐 뚜렷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1952~2010년 간). 1950년대에는 남부와 도서지역 여성들의 평균 총 출산율이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총 출산율의 평균과 비교할 때 대략 1.2배가 되었다. 중부와 북부 지역 간의 출산율의 차이와 남부지역¹⁸⁾의 출산율 차이는 1960년대에 0.9였으나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에는 0.5정도까지 줄어들었다¹⁹⁾. 1995년은 이탈리아의 총 출산율이 1.19로 지금까지 중 가장

18) 남부와 섬들

19) 하나의 예로, 1975년에 남부와 도서지역의 총출산율은 중부의 2.00과 북부지역의 1.93에 비해 2.69였다(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2011).

낮은 수준을 보이던 때였는데, 그 해 모든 지역에서의 총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감소함에도 북부와 도서지역의 총 출산율은 다른 지역이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을 보이는데 반해 약 1.4의 총 출산율을 기록했다. 1995년 이후 출산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 국가적 수준의 총 출산율 증가가 주로 북부와 중부지역의 총 출산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에도 - 사실, 남부 및 도서지역의 출산율은 지금까지 감소하고 있음에도 2005년까지 계속 다른 지역의 평균 총 출산율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단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북부와 중부지역의 총 출산율만이 남부와 도서지역의 출산율보다 더 높았다.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감소를 보이는 복합적인 지역 차이의 영향과 지역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이는 고령 노인의 증가는 이탈리아의 연령구성에 또 다른 영향을 낳았다. 어떤 지역에서는 보다 젊은 인구구성을 보이는 지역(전형적으로 남부와 도서지역)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 세부 지역(중부, 북동부, 북서부 지방)의 인구연령이 더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경향은 보다 강하고 부정적인 자연적인 변화들(즉, 비슷한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들)로 특징지어진다.

2. 미래의 경향

ISTAT는 이탈리아의 인구가 2050년까지 6,3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절대 항(absolute terms)에서의 조금 커진 인구수의 증가는 이탈리아인들의 인구 감소(-530만 명)와 외국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극적인 인구 증가(+780만 명, 2007년부

터 2050년 사이의 상대성장률 265%)로 인한 예측된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이다(Eurostat 2008; Associazione italiana per gli studi di popolazione 2011; ISTAT 2011a). 절대 항에서의 이탈리아의 인구증가는 노인의 인구가 아이의 인구보다 더 많은, 뒤집어진 피라미드 모양의 나이 분포와 같아질 것이다. 이러한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는 감소되는 출산율과 함께 최근의 연령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십 년 동안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바꿀 것이다. 2010년에는 15세 미만의 이탈리아의 인구가 14% 밖에 되지 않은 반면 65세가 넘는 사람들은 1961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하여 총 인구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stat 2008). 이탈리아에서 0~14세의 인구비율은 2010년 14%에서 2050년 12.6%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같은 시점에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20.1%에서 2050년 33.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ISTAT 2011a), 2010년의 80세 이상 인구가 적어도 10%가 될 것 또한 매우 강하게 예측된다(Grundy 2010). Eurostat의 인구 통계학적 추정에 의하면, 상대가중(relative weight)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2030년까지 전체인구의 1/4을 차지하고, 2040년에는 1/3을 차지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탈리아에서 15세 미만의 인구는 2030년까지는 14%에서 12%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몇 십 년 동안은 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3-8〉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예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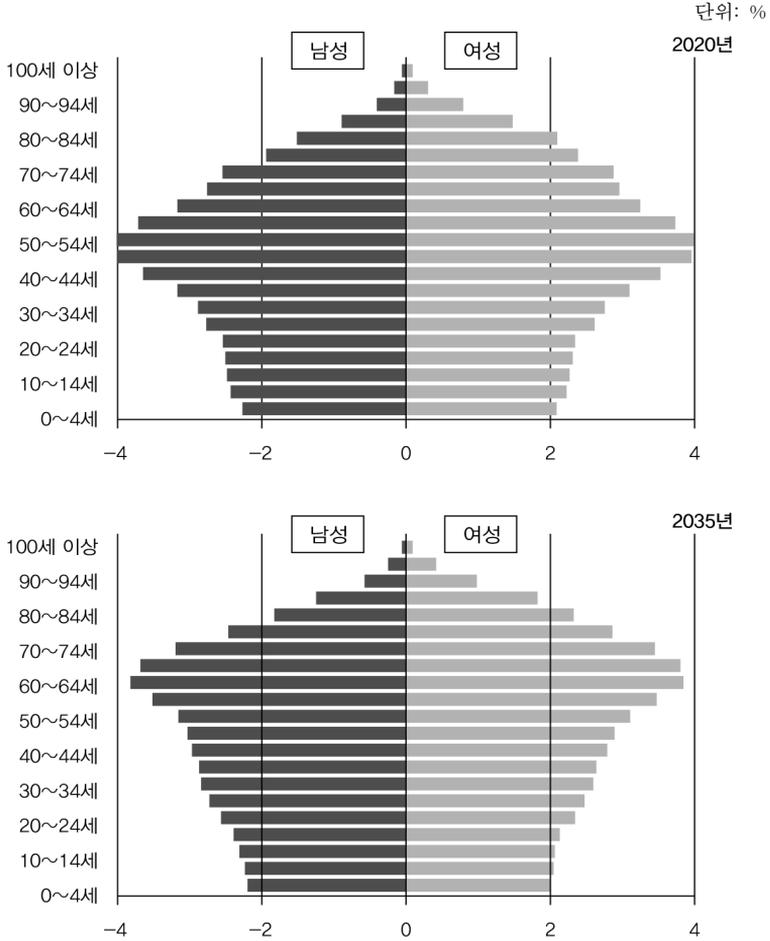
		2020	2030	2040	2050
Eurostat	0~14세	12.9	11.6	11.4	11.2
	65세 이상	23.3	27.5	33.1	35.3
ISTAT	0~14세	13.6	12.6	12.5	12.6
	65세 이상	22.5	26.1	31.1	33.1
	85세 이상	3.7	4.5	5.7	7.9

주: 선별된 년도들에서 15세 미만의 인구의 비율의 예측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의 예측함.

자료: Eurostat (Trend scenario, national level - 기준년도: 2004년) and ISTAT (기준년도: 2007년).

[그림 1-3-7]은 이탈리아 2020년과 2035년의 예측된 연령 분포를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인구를 대체 할 수 있는 수준 보다 훨씬 낮게 예측이 되며, 가임기의 여성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출산 집단들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1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의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의 하단(0~4세)은 앞으로의 더욱 감소된 출생을 반영하며 2020년도의 피라미드 하단처럼 넓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45세에서 55세(1965년과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 부분이 볼록히 튀어나와 있다. 이는 1973년 전체 출산율의 급락 보다 앞선, 빠른 출산율의 증가(일명 ‘베이비 붐’)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은, 피라미드 상부를 더 가깝게 만들고, 노인집단의 규모를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35년에는 0세에서 4세의 여성 인구가 전체인구의 2% 정도로 그 수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7] 2020년과 2035년의 나이-성별 예측 인구 피라미드



출처: www.demo.istat.it “중간/중양” 추측들에 기초한 예상. 가설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오.

위에 나타난 인구 나이 구성의 변화는 전형적으로 경제활동가능 연령으로 규정하는 인구(15세~64세)와 비경제활동연령으로 구분되는, 의존적인 연령(0~14세, 65세 이상)으로 간주되는 인구의 백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의존적인 연령”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연령(0~14세), 고령의 나이(65세 이상)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 둘은 흔히 공적 연금 시스템의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략적인 지표가 되며, 인구 연령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경제의 성장과 도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반면 2010년에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 노인의 비율(OADR: Old Age Dependency Ratio)이 30.8이었다. 이 수치는 100명의 노동인구가 책임져야 할 노인이 20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수치는 61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2036년에 이탈리아의 OADR 수치는 50을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곧 노동인구의 2명당 책임져야 할 노인의 수가 1명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이탈리아 인구의 평균연령은 차후 4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에는 거의 50살이 될 것으로 추측 된다. 결과적으로 100명의 15세 미만의 인구 당 65세 이상의 인구 지표는 2030년경에 200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말은 이탈리아는 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노인의 숫자가 2배가 될 것을 의미한다. 독일과 함께 이탈리아는 최근 들어 노인 인구의 안정된 기록을 가지며 ‘인구고령화의 페이스 메이커’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도전들과 씨름하는 유럽의 나라 중에 하나임을 말한다(Baldi and Cagiano De Azevedo 2005; Eurostat 2011b).

〈표 1-3-9〉 나이 구조 측정 방법(예측값)

단위: %, 세

	노인 부양인구 비율	부양인구 비율	고령화 지표	평균연령
2010	30.8	52.2	144.0	43.0
2020	35.2	56.4	165.9	45.2
2030	42.61	63.2	207.1	47.0
2040	55.0	77.1	249.5	48.5
2050	60.8	84.0	262.8	49.5

자료: www.demo.istat.it “중간/중앙” 추측들에 기초한 추정

명백히 밝힐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에 근거한 예상이라 할지라도(특히 이민의 추세와, 이민자와 이탈리아 본국 시민의 출산율에 있어서), 과거의 특정한 추이와 그것들의 결과는 명확한 편이다. 예를 들어, 가족 형성의 과거 추세(평균 자녀의 수, 결혼율 등)는 아이를 낳지 않은 나이 든 여성의 비율과 그들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정도를 결정했다. 총 출산율과 출생 집단에 따라 아이가 없는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 1-3-10>을 볼 때에, 이탈리아에서는 아이가 없는 고령 여성의 비율이 최근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여성들이 1950년에 태어났으며 곧 65세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30년경에 들어서는 거의 이탈리아 여성 중 5명 중에 한 명이 아이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표 1-3-10> 출생집단과 선정된 년도에 의한 총 출산율과 45세의 아이가 없는 여성들의 비율

단위: 명, %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총출산율	2.28	2.28	2.14	2.07	1.89	1.80	1.66	1.49
아이 없는 여성	13.5	12.5	12.0	9.8	11.3	12.7	15.3	21.2

자료: Council of Europe (Comite europeen sur la population du Conseil ed L'Europe, 2005);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 2011년 6월 12일 마지막 참조.

유사하게, 가족 규모의 분포 또한 변화해 왔다. 이탈리아에서는 1930년과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1930년과 1940년에 태어난 여성은 평균적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반면, 1950년경에 태어난 여성들은 2명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명 미만의 자녀를 가진 65세의 여성의 비율이 2015년부터 증가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여성들은(2030년까지) 더욱 적은 수의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한다.

| 제2절 | 노령화된 인구와 관련한 변화들

평균 연령의 증가는 위대한 성과이다(WHO 2001; 2002)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는 때때로 부정적으로 그려지곤 한다. 낮아진 출산율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이탈리아의 노동인구 비율을 떨어트리는 동시에 노령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이탈리아의 인구 고령화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즉, 가족 구성, 삶의 방식,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서부터 경제 활동, 고용률, 사회보장, 그리고 세대교체까지 영향을 미친다”(Peace et al. 2007).

사실 주요한 것은,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인구고령화는 공공재정의 유지 가능성과 연금 비용과 같은 복지공급(일반적으로 소득보조금, 은퇴에 적정한 나이와 은퇴의 수준과 종류), 노동인구의 축소(일반적으로 실제적 노동 인구의 비유로가 경제 생산성의 증가 요구), 가족 내 부양의 유효성, 건강보험의 비용, 문화의 통합을 포함한 국제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Hegemann and Nicoletti 1989; Bonifazi et al. 2009).

일반적인 추측은 인구 노령화의 과정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점점 더 많이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의 노령화는 공공지출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적은 수의 고용자들이(즉, 줄어드는 과세비용) 여러 가지 형태로 더 많은 자금을 대야 할 것이다(세금이나, 사회 보장 부담금 등). 빠르게 증가하는 고용시장 밖의 인구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줄어드는 노동 인구에 주어진 조세의 추가의 짐은 줄어들 것처럼 보이나, 특별히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나이든 노동자

들의 비율이 낮게 유지 되는 곳에서 젊은 노동자들과 나이든 연금 수령자들 사이의 세대 간 불공평성과 긴장이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OECD 2004; Grundy 2010). 게다가, 노동인력의 수와 퇴직패턴, 또는 연금 혜택 비율 변화가 바뀌지 않은 점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연금비용을 증폭 시킬 것이라는 것 또한 주장 된다 (한 명의 노동자가 부양해야 하는 연금 수령자의 증가가 크게 기인되어진다). Bongaarts는 이탈리아에서 고용률의 증가가 (특히 여성 노동 참여 인구에서 증가) 노동 인구당 연금 수령자의 수와, 연금의 소비 둘 다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Bongaarts 2004). 최근 들어 노령화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 공공 연금 시스템의 용이성과 지속 가능성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몇 개의 개혁들과 정책들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 기간의 증가에서부터 여성 노동자의 참여 인구까지, 가족과 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 개혁들과 정책들은 여전히 구상중인 상태이다(Baldi and Cagiano De Azevedo 2005).

점차 늘어가는 65세 이상의 인구수와 비율은 이러한 경향이 건강 보험료에 끼칠 영향에 대한 걱정들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몇몇의 연구들은 인구 고령화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Dang et al. 2001). 다른 연구들은 노령화가 건강보험 비용에 아주 한정적이고 적은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Richardson and Robertson 1999; Zweifel et al. 1999).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연령이 건강보험 비용에 있어서 특별히 좋은 예상변수가 아니라는 것과, 만일 건강상태가 사망률과 함께 향상된다면, 이것이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건강 보험 비용 증가의 부담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Reinhardt 2003; Gray 2005). 이탈리아에서는

노인을 보살피는 일이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다양한 가족 유형 및 가족 규모의 변화에 따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비공식적인 부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전문적인 노인요양 서비스가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Glaser et al. 2004; Tomassini et al. 2004).

한 사람의 여성 당 낳는 아이의 수의 감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아이 없는 성인들의 비율의 증가,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참여 비율,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비율의 증가(특히 여성 노인 중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높아지는 이혼율, 이 모든 요소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그들의 가족에서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Bolin et al. 2008; Eurostat 2008). 2009년에 65세 이상의 남성의 13.6%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사는 여성은 거의 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의 가구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은 1970년대와 2000년대 후반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되었다(Tomassini et al. 2004).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 배우자의 도움 없이 사는 여성들(대부분 과부들)과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에, 혼자 사는 것이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노인들에 관한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ISTAT 2011d).

| 제3절 | 소결

이탈리아는 1970년대 중반부터 현 인구를 대체 할 수 있는 것 보다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탈리아는 만연히 1.3명 미만의 출생률을 나타냈었다. 비슷하게, 이탈리아는 요즘에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남성, 여성 모두 성인 나이 65세 때에 측정한 기대수명이 가장 높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2000년대 후반 사이에도 또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태어났을 때와 65세 때 모두). 지역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탈리아의 인구는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또한 최근 예상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5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연령 구조의 변화는 경제, 정치, 사회의 넓은 범위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가진다.” (UN 2001).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는 특별히 의료 보험료와 건강보험의 수요, 연금 지급과 세대 간의 사회적 지지 시스템의 장기 실행가능성의 이슈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도전을 가지고 온다.

참고문헌

- Associazione italiana per gli studi di popolazione (eds.) (2011). Rapporto sulla popolazione. L'Italia a 150 anni dall'unità. Universale paperbacks, Bologna: Il Mulino.
- Baldi, S. and Cagiano De Azevedo, R. (2005). La popolazione Italiana. Storia demografica dal dopoguerra ad oggi. Bologna: Il Mulino.
- Bolin, K., B. Lindgren, et al. (2008). Your next of kin or your own career?: Caring and working among the 50+ of Europ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7(3): 718-738.
- Bongaarts, J. (2004). Population Aging and the Rising Cost of Public P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23.
- Bonifazi, C., F. Heins, et al. (2009). 『The Italian transition from an emigration to immigration country』. IDEA Working Papers. Citizens and Governance in a Knowledge-Based Society(5).
- Coleman, D. A. (2003). 『Mass migration and population change』. *Zeitschrift für Bevölkerungswissenschaft* 28(Special issue In Memoriam. Dr. H.-J. Hoffmann-Nowotny): 183-215.
- Comité européen sur la population du Conseil de l'Europe (2005). Evolution démographique récente en Europe 2004. Strasbourg: Cedex.
- Dang, T., P. Antolin, et al. (2001). Fiscal Implications of Ageing: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 305. Paris: OECD.
- Eurostat (2008). Europe in figures - Eurostat yearbook 2008.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mmission.

- Eurostat (2011). Europe in figures - Eurostat yearbook 2011.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 Eurostat (2011).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s, Statistics in Focus 23.
- Glaser, K., C. Tomassini, et al. (2004). Revisiting convergence and divergence: support for older people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Ageing 1(1): 64-72.
- Gray, A. (2005). Population Age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geing Horizons(2): 15-20.
- Grundy, E. (2010). The care of ol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problems, provision and policy. Experiencias internacionales y propuestas para consolidar la red nacional de cuidado de las personas adultas mayores en Costa Rica. CEPAL. San José.
- Hagemann, R and G. Nicoletti (1989). Ageing Populations: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Public Finance,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 Paris: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61.
- ISTAT (2011). 『Il futuro demografico del paese. Previsioni regionali della popolazione residente al 2065』. Statistiche Report.
- ISTAT (2011). 『Indicatori Demografici, Anno 2010』. from http://www3.istat.it/salastampa/comunicati/in_calendario/inddemo/20110124_00/testointegrale20110124.pdf.
- ISTAT (2011). 『La popolazione straniera residente in Italia』. Statistiche Report.
- Kinsella, K. and Phillips, D. R. (2005). 『Global aging: The challenge of success』. Population Bulletin 60(1): 1-44.
- Lesthaeghe, R. (2000). 『Europe's demographic issues: fertility, household formation and replacement migration』. Working paper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 Livi Bacci, M. (1999). Introduzione alla Demografia, Torino: Loescher

Editore.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2011). *L'immigrazione per lavoro in Italia: evoluzione e prospettive. Rapporto 2011*, Direzione Generale dell'Immigrazione.

OECD (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Italy*, Paris: OECD.

Peace, S., F. Dittmann - Kohli, et al. (2007). *The Ageing World. Ageing in Society: European Perspectives on Gerontology*, J. Bond, Peace, S., Dittmann-Kohli, F and Westerhof, G. London: SAGE publications: 1-14.

Reingardt, U. E. (2003). *Does The Aging Of The Population Really Drive The Demand For Health Care?*, *Health Affairs* 22(6): 27-39.

Richardson, J. and I. Robertson (1999). *Ageing and the Cost of Health Services. Working Paper, Centre for Health Program Evaluation* 90.

Tomassini, C., Glaser, K. et al. (2004). *Living arrangements among older people: an overview of trends in Europe and the USA*, *Population Trends* 115: 24-34.

UN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UN (2001). *World Population Ageing 1950-2050*. 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an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Human Mortality Database." from www.mortality.org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Zweifel, P., S. Felder, et al. (1999). *Ageing of population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 red herring?* *Health Economics* 8(6): 486-496.